

현대·기아차 '내장형 블랙박스' 신차에 적용

세계 최초 '주행 영상기록장치' 빌트인 타입 순차 적용 스마트폰과 연동...운전자 시야 가리지 않고 안전 확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내장형 블랙박스를 앞으로 출시할 신차에 세계 최초로 적용한다.

현대·기아차는 차량 내장형 '주행 영상 기록장치(DVRS·Drive Video Record System)'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 DVRS는 차량 내 AVN(Audio·Video·Navigation) 화면 및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간단한 기능의 내장형 영상 기록장치가 양산차에 적용된 사례는 있었지

만 △전후방 고화질 녹화 △주차 중 녹화(보조배터리 장착 시) △충격감지 모드 △AVN 연동 △스마트폰 연동 △메모리 고급 관리 △eMMC(내장형 메모리) 적용 등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고 높은 신뢰성과 외부 연결성까지 갖춘 차세대 DVRS가 빌트인 타입으로 제공된 것은 처음이다.

특히 현대차·기아차의 DVRS 모듈은 룸미러 뒤쪽 공간에 숨겨져 외부로 노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 방해나 사고 시 부상 우려가 전혀 없다.

이 DVRS의 전방 카메라(해상도 1920x1080)는 룸미러 뒤쪽 플라스틱 커버 안에 내장되며 후방 카메라(해상도 1280x720)는 기존 주차보조용 카메라를 활용한다. 긴급 녹화버튼은 룸미러 위 실내등 옆에 배치돼 위급 상황에서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차량 내부에 장착된 32GB 용량의 저장 장치는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내장형 eMMC 타입으로 내구성과 신뢰성이 높은 메모리를 적용해 일반 외장 카드타입 메모리에 비해 장기간 사용해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낮다. 연속 녹화시간은 주행 중 3시간, 주차 상태에서는 10시간(보조배터리 추가장착 시)까지 가능하다.

이 밖에 흑한, 흑서 상황에서도 녹화가

가능하도록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저장된 영상은 AVN 화면이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상 재생, 편집, 삭제, 공유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대화면 AVN에서 바로 영상을 선택해 재생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영상 재생 중에도 터치 스크린을 통해 부분 확대가 가능해 작은 번호판도 확인하기 쉽다.

현대차·기아차 관계자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편의 장치를 조사한 결과 DVRS가 많았다"며 "고객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신뢰성 높고 관리가 거의 필요 없는 빌트인 타입 차세대 DVR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제갈대중 기자 dj2891@



현대차와 기아차는 차량 내장형 '주행 영상 기록장치(DVRS)'를 향후 출시하는 신차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내장형 블랙박스는 스마트폰과 연동해 스마트폰에서 블랙박스 화면을 볼 수 있다.

편의점 카드결제 늘어 모바일 결제도 증가

카드결제가 보편화하면서 비교적 현금 결제가 많았던 편의점에서 10명 중 6명 꼴로 카드를 이용해 계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CU(씨유)는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카드와 현금 결제 건수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61%가 카드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CU에서는 2016년까지만 해도 카드결제 비율은 48%였다. 반면 현금 결제는 52%였다. 편의점은 취급하는 상품이 소액이 대부분이어서 유통 채널 가운데서도 현금이 가장 많이 도는 곳으로 꼽혔다.

그러나 카드결제 비중은 2017년 53%를 기록하며 현금 결제를 앞질렀고 2018년에는 59%까지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 61%까지 치솟은 것이다.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80~90%에 육박했던 현금 결제 비중은 2017년 47%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데 이어 2018년 41%, 올해 들어서는 39%로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결제 금액 기준으로 봐도 카드결제 비중은 지난해 64.9%를 기록하며 현금 결제를 따돌렸다.

더구나 최근에는 실물 카드를 꺼내는 대신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모바일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들도 점차 늘고 있다.

CU에서 모바일 결제 비중은 2016년에는 1%가 안 되는 수준으로 미미했지만 2017년 4%, 2018년 6%까지 증가했고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까지는 7%까지 올라갔다.

소액도 카드결제를 하는 것이 보편화한 데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신용카드사들도 간편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앞다퉈 개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모바일 카드가 실물 카드를 대체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빈집 14만채...전남 '전국 최고'

빈집 가장 많은 곳 광주 북구·전남 여수

광주·전남 빈집 수가 15만 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 수는 광주 북구와 전남 여수시가 가장 많았고, 주택 수 대비 빈집비율은 광주 동구와 전남 나주시가 가장 높았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광주 빈집 수는 3만3천569채, 전남 빈집 수는 10만9천799채였다.

광주 총 주택 수는 50만8천621채로 주택 수 대비 빈집비율은 6.6%였다.

전남 총 주택 수는 76만7천825채로 주

택 수 대비 빈집비율은 14.3%였다.

광역시도 평균 빈집비율 7.4%보다 광주는 낮았지만, 전남은 크게 웃돌아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빈집비율을 보였다.

광주의 경우 단독주택 빈집이 5천400여채, 공동주택 빈집이 2만7천여채였다.

동구가 주택 수 3만3천266채 빈집 2천496채로, 빈집 비율(7.5%)이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주택 수와 빈집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북

구로 15만4천667채, 1만853채로 빈집비

율은 7%였다.

전남 단독주택 빈집 수는 5만7천여채, 공동주택 빈집 수는 5만1천여채였다. 나주시가 주택 수 4만8천326채 빈집 9천643채로, 빈집비율이 20%에 달했다.

영암군의 경우 빈집 수 4천941채, 빈집 비율이 19.3%로 나주시에 이어 높은 빈집비율을 보였다.

주택 수와 빈집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여수시로 11만277채 중 1만3천504채가 비어 있으며 빈집비율은 12.3%였다.

특히 하락세를 보였던 전남지역 농촌 빈집 숫자가 2017년 많이 증가했다.

/정승현 기자



신학기 개학 맞아 아이들 스타일링 어때요? 개학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을 찾은 어린이들이 이마트가 선보인 유아를 위한 '매일매일 시리즈'와 아동을 위한 '꼭 필요한 시리즈' 의류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마트는 오는 13일까지 시리즈 전 품목에 대해 2매 구매 시 20%, 3매 구매 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전남 소비자상담, 라돈 관련 침대 최다

지난해 531건...이동전화서비스·스마트폰 상담도 많아

전남지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소비자 상담 문의가 이뤄진 것은 라돈 관련 침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등이 공동 발표한 '2018년 전남도 지역별 소비자상담 맞춤형 정보 분석'을 보면 2018년 한 해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남지역 소비자상담은 총 1만 4천685건이다.

소비자상담 품목별로는 침대가 531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동전화서비스 421건, 스마트폰 324건, 택배화물운송 서비스 270건 등의 순이었다. 침대 매트리스 라돈 검출로 '침대' 품목 상담이 가장 많았고, 섬 등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으로 '택배화물운송서비스' 품목의 상담이 4위로 조사됐다.

상담 사유별로는 '계약' 관련이 가장 많

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대와 스마트폰 품목은 품질·AS 상담도 많았다.

품목별 상위 증가율을 비교하면 침대, 투자자문·컨설팅, 호텔, 치과, 기타 가방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증가율 상위 5개 품목과 비슷하다. 사회적 이슈가 된 품목들이 많이 늘어난 셈이다.

전남도와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은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연령별 맞춤형 교육, 홍보 강화 및 피해구제를 통해 전남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윤규진 기자

로또 (848회)	
추첨일 : 2019년 3월 2일	
번호	1,2,16,22,38,39+34
등위	금 액
1등	3,011,580,858원
2등	83,655,024원
3등	1,665,961원
4등	50,000원
5등	5,000원

www.citygas.or.kr




안전하고 편리한 연료, 따뜻한 에너지

함께 걷는 사람이 있어 삶이 더욱 복되듯,
모두가 함께하여 더욱 풍요로운 내일을 만듭니다.
국민과 가족을 책임지는 안전한 에너지,
도시가스가 따뜻한 동행을 약속합니다.